

광주염주빙상장 보수공사 차질

광주 유일의 겨울스포츠 시설인 염주실내빙상장의 보수공사가 계획 때 있지만 동계종목 선수들의 대체 훈련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제2 빙상장 건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공사 보류'를 고려하는 등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광주시와 도시공사, 체육회 등에 따르면 염주실내빙상장 바닥의 균열과 변형 등이 확인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37억80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께부터 본격 공사를 진행해 12월

1997년 준공이후 22년...균열·용기현상 발견 동계선수 200여명 훈련...광주시, 공사 연기 고려 해법은 제2 빙상장 건설...올해도 예산반영 안돼

개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염주실내빙상장은 일반인을 비롯해 빙상연맹 스피드·피겨 선수 44명, 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클럽 2개팀, 아이스하키 동호회 5개팀 185명이 이용하고 있다.

선수들은 광주에서 인접한 전남 광양과 전복까지 이동해 훈련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염주실내빙상장은 광주지역 유일한 빙상장으로 1997년 준공 이후 약 22년이 경과돼 노후 건축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4월 안전검사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아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빙상장의 바닥이 갈라지

고 변형, 용기현상이 발견돼 보수공사가 결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빙상장을 관리하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체육회 등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해법은 제2 빙상장 건설이어서 정부에 건의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러 "동계훈련은 10월부터 2월까지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훈련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나오면 빙상연맹 등과 다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무기산 보관·운반 김양식 어민 4명 적발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및 유해 화학물질을 고흥군 도화면 일원에서 불법 보관 및 운반한 혐의로 김양식업자 A(48) 씨 등 4명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고흥군 도화면에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김양식업자 A(48) 씨를 비롯해 유해 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B(64)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6시 40분에 고흥군 도화면 인근 마을 아산에 무기산 2만6000l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64) 씨와 C(33) 씨는 무기산 운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5일 오후 3시에 고흥군 도양읍 D(42) 씨에 대해 주거 차고에 무기산 400l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 및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잡채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주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15곳 적발

광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5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자치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합동했다.

적발 유형별로 광산구 A사업장은 미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이용하고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B사업장은 대형 자동차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의 훼손을 방지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 3곳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거짓기록 사업장 2곳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지한 사업장 등 15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조치)을 하고 과태료 2280만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고발사항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10개 사업장을 행정처분했으며 2개 사업장을 고발 조치했다.

시는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엄마야빠 사랑해요... 어버이날인 8일 오후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효사랑 세족식'이 열려 학생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고 있다.

피켓 항의한 순천시 70대 장애 할머니 입원 치료중

최근 2개월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피켓시위를 해오던 70대 지체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순천지역 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아 억울하다며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던 지체장애 3급 김모(75) 할머니가 피켓에 적혀있는 상대방에게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초부터 2개월 가량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순천시 조례동 H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피켓을 든 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서로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시민들은 이같은 폭행사실에 경악하는 모습들이다.

몸이 불편해 신앙생활로 한평생을 견뎌 낸 김씨는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씨(57·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에게 폭언과 협박, 공갈 피해를 입고 있

다고 1인 피켓시위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김씨는 "A씨가 나한테 배를 손가락으로 맞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황청심원을 먹은 후 겨우 진정을 했다는 거짓을 퍼뜨려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렸다"며 "사과를 받으려고 두달 넘게 A씨를 만났려고 해도 피해다니기만 해 항의 포시로 피켓을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후 지난달 28일 낮 12시 10분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교회에서 A씨를 발견하고 항의하기 위해 A씨의 배꼽 부위 양복 깃을 양손으로 잡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못살게 구느냐"고 말하자 A씨가 "기가 막히다"고 하며 갑자기 일어 내면서 큰소리를 쳤다.

A씨가 화를 내면서 상의를 벗자 잡을 곳을 잃어버려 양손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A씨의 다리를 붙잡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이것 좀 봐" 하면서 발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걷어차 그 충격으로 거품을 물면서 의식을 잃고 예배당 바닥에 쓰러졌다.

곧바로 119 구급차로 이송된 후 병원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김씨는 150cm 왜소한 체구로 지팡이가 있어야 한걸음이라도 걸지만 A씨는 키가 180cm인 건장한 체격이다.

김씨는 지난 3일 상해죄로 A씨를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바닥에 넘어진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계속 구토 증세가 있다"며 "숨이 막히고 울렁증과 가슴 통증으로 잠도 못 이루고 있다"고 증상을 호소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발레파킹 손님 차량서 현금 훔친 직원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숙박업소를 찾은 손님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서구 한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A(60)씨의 차량 안 보관함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종업원 박씨는 숙박객 A씨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1년 가량 모텔에서 일한 A씨는 경찰에 "순간적인 욕심에 범행했다. 전액을 훔치면 바로 들릴까 봐 일부만 빼내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

시비 끝 손님 흥기로 찌른 주인 영장신청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술값 시비가 붙자 손님을 흥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술집 주인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B(41)씨의 영덩이를 흥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값 150만원을 치르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래방 업주 협박 금품 갈취 일당 검거

일명 '불법비리척결운동'이라는 불법 단체를 만든 뒤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공갈 혐의로 이 단체 회장 A(53)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여부를 들먹이며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을 (1종)유용주점으로 영업 변경해줄"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원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A씨 등은 범행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업주들에게 내밀며 힘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